매출은 떨어지는데 원자재값 오르고, 대금회수까지 안돼…

지역 中企 절반 "올 추석도 어렵다"

자금 부족률 32.7%…일부 사채조달 계획도

광주·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추석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급락, 판매 대금 회수지연 등 '3중고'가 겹친 때문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석자금 실태조사 결과 48.5%가 '곤란(36.6%)' 또는 '매우 곤란(11.9%)'이라고 답변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업체는 17.8%에 그쳤다.

'곤란', '매우 곤란'하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해 56.8%에서 8.3%P 하락해 지난해보다는 자금사정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4.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58.2%), 판매대금 회수 지연(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평균 1억937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이 가운데 1억3030만원을 확보 가능하고 634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자금 부족률이 32.7%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이 '곤란하다'는 업체는 37.7%로 지난해의 34.7%보다 3.0%P 상승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반영했다.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신규대출 기피(53.8%), 추가 담보 요구(40.4%), 대출이자율 인상 등 금융비용 증가(30.8%), 신용평가 강화(30.8%), 신용보증서 요구(26.9%), 대출한도 축소(26.9%) 등의 순이었다.

부족자금 확보 방법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지급연기'(20.0%) 등이었다. 일부 업체(5.7%)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채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이번 추석의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전년 수준 지급이 52.5%로 가장 많았고 축소 지급 5.9%, 확대 지급 2.0% 등으로 60.4%의 업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세웠으며,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59.4%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휴무 계획은 3일 휴무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일 24.0%, 5일 17.0%, 1~2일 4.0% 등이었으며 휴무일 없이 근무하는 업체는 1.0%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업자금 대출 도와드릴게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3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 시장 내 우리미소금융 광주지점을 방문, 고객과 즉석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고객 박모(여)씨의 사업자금 대출을 주선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 기업은 선물 받지 않습니다"

광양제철·현대삼호重 반송센터 운영

"추석 선물 정중히 거절합니다."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에 나선다.

광양제철소는 추석을 전후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내에 추석선물 반송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양제철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선물반송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앞으로 회사에 전달된 선물은 즉시 반송 처리하고,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외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사내경매를 통해 처리하고 수익금은 사회공헌기금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도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석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초 계열사와 협력회사 3500여곳에 선물이나 금품을 정중히 거절한다는 협조 서신을 발송했다.

또 부득이하게 선물을 받은 경우라도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5년 그룹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매년 명절마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자본 光銀 인수 지혜로운 접근방식 필요"

진동수 금융위원장 특강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역자본의 광주은행 인수와 관련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금융정책의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 특강을 마친 뒤 광주·전남지역상공인들의 광주은행 인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예전 한남투신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비싼값에, 조기 매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역상공인들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는 뜻을 여러 루트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뜻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가위 비용 가구당 35만4000원"

최고 48만6000원까지 소득수준별 2.7배差

올해 추석 비용으로 가구당 평균 35만4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컴퍼니 코리아는 지난달 16~22일 서울과 4대 광역시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비용 지출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월 소득 501만원 이상 가구는 평균 48만6000원, 201만~500만원은 32만4000원, 200만원 이하는 18만2000원의 명절 비용을 예상해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2.7배에 달했다.

명절 비용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57.1%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고, 32.8%는 '부담이 증가했다', 7.1%는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월 소득 501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29.2%, 201만~500만원 응답자의 33.3%, 200만원 이하 응답자의 38.8%가 부담이 늘었다고 답해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 계획에 대해서는 41.4%가 '집에서 가족끼리 지내거나 친척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시골에 있는 부모나 친척이 도시로 오는 역귀성을 예상한 응답은 8.9%였고, 고향집은 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것 같다거나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는 사람은 각각 4.9%와 2.2%였다. /연합뉴스

올 추석 히트상품은 곶감 실속형 생활용품도 인기

과일 선물세트 가격 급등으로 대체상품 수요↑

올 추석에는 정육·굴비·생활용품 등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20~30%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자 대체상품으로 정육, 굴비, 생활용품 선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 추석 선물세트 중 굴비와 정육 상품군 매출이 16%, 12%씩 증가했다. 반면 과일세트는 매출이 4% 증가한데 그쳤다.

으뜸 알배기 굴비(12만원), 알뜰 한우(22만원), 상주 곶감 등 채반세트(13만원), 실속 혼합 멸치(10만5000원) 등이 인기 선물로 꼽히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추석선물세트 중 고급 식용유, 참치캔 등 생활용품(약 12%)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한우도 6%가량 매출이 늘었다.

동원참치 세트(3만7500원), 장수한우 세트(18만원), 로얄 한우(26만원), 마른 굴비세트(30만원) 등이 추석선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곶감이 추석선물 히트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의 곶감세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9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마트에서도 6일부터 11일까지 곶감 세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95.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마트에서 한우 선물세트 판매가 작년 이맘때보다 2배가량 늘었고, 롯데마트에서도 14.1%의 신장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버섯과 김, 식용유, 참기름과 양말 세트 등의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도 대형마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업 선물수요가 늘면서 전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보다 20%가량 뛰었다"고 분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농협 '한가위 페스티벌'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고객사은 행사를 실시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판매장 행복채움 고객사은행사'가 진행되는 오는 21일까지 하나로클럽에서 NH채움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농촌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30일까지 '2010 한가위 사랑채움이벤트'를 진행, 농협 간 송금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할인, 외국환 송금수수료 50% 할인 행사도 벌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

14~16일 직거래장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광장에서 한가위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쌀, 잡곡, 사과, 배, 밤, 버섯 등 선물세트와 건어물을 비롯한 다양한 제수용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싼 가격에 판매한다.

전남농협은 사과·배 등 원예작목이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기에 출하가 늦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 이번 한가위 직거래장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